

#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담당자	사무관	김능경 (042-366-7314)
			주무관	이선영 (042-366-7320)

## 일 러 두 기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한국의 사회 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은 올해 17번째로 발간되며, 인구, 노동, 주거, 주관적 웰빙 등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 각 영역은 '주요 동향' 1편과 '주요 이슈'에 관한 1~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가족돌봄청년, 노인 다약제, 비만 위험,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 및 여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일자리 영향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황과 변화 양상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와 시기가 상이하오니, 결과 해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 게시하며, 보고서는 통계개발원 홈페이지(kostat.go.kr/asdk), 국가통계포털(kosis.kr), 지표누리 홈페이지(index.go.kr)에 공표 이후 게시합니다.

# 목 차

## □ 「한국의 사회동향 2024」 요약

## □ 「한국의 사회동향 2024」 주요 결과

### I. 인구, 가구·가족, 사회통합 영역

1.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 5
2. 지역인구의 변화: 저출생과 인구이동 ..... 7
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 9
4. 청년세대의 젠더 격차 ..... 11

### II. 주거, 건강, 범죄·안전 영역

5. 노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문제 ..... 12
6. 노인의 다약제 및 노인주의약물 사용 실태 ..... 14
7. 비만 관련 질병의 사망위험 ..... 16
8. 마약류 오·남용 실태 ..... 18

### III. 여가, 주관적 웰빙, 노동, 생활환경 영역

9. 신중년의 여가와 행복 ..... 19
10.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 ..... 21
11.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노동시장 ..... 23
12.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24
13. 기후변화와 농작물 생산 변화 ..... 26

##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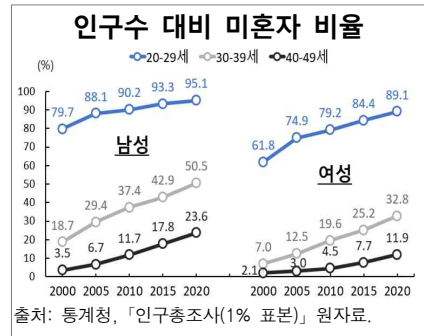
- ◎ 「한국의 사회동향 2024」 영역별 논문 제목 및 집필진 ..... 27

# 「한국의 사회동향 2024」 요약

## I 인구, 가구·가족, 사회통합 영역

### 2020년 40대 미혼자 비율이 2000년 대비 남성 6.7배, 여성 5.7배 증가

- 혼인시기의 지연과 생애미혼의 증가로 2000년 이후 20~40대 미혼자 비율 증가세 지속
  - 남성은 미혼자가 유배우자보다 고용률(주로 일하였음)이 낮고, 여성은 미혼자 고용률이 더 높음
- 19~34세 미혼자의 결혼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교육, 경제, 주관적 건강 수준이 좋을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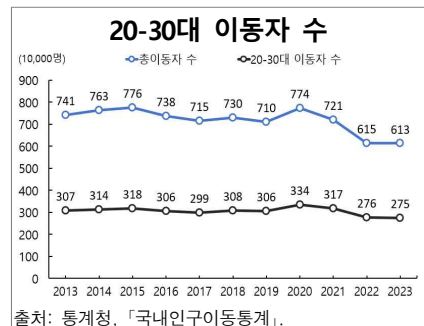


### [5~6쪽] 1.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불균형은 출생보다 지역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

-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50.2%이고, 비수도권 5개 광역시 인구는 5년 전보다 1.7~3.2% 감소
- 20~30대는 2023년 국내 이동의 44.9%를 차지하며, 생애과정 수요에 따라 연령대별 이동 특징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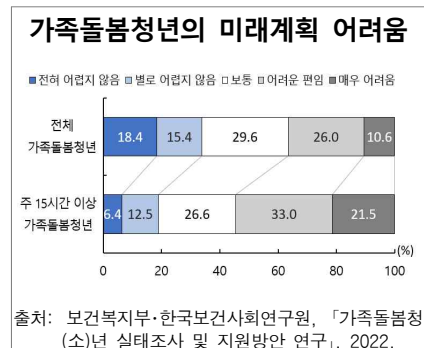
학업	직업	가족형성·주거	가족확대·정착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 [7~8쪽] 2. 지역인구의 변화: 저출생과 인구이동

### 2022년 가족돌봄청년의 36.6%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 2020년 기준 13~34세 인구의 1.3%인 15만 3천 명이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됨(인구총조사 자료 활용)
- 2022년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책임짐(2022년 실태조사 결과)
  - 가족돌봄청년의 61.5%가 우울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 15시간 이상 돌봄인 경우 우울 수준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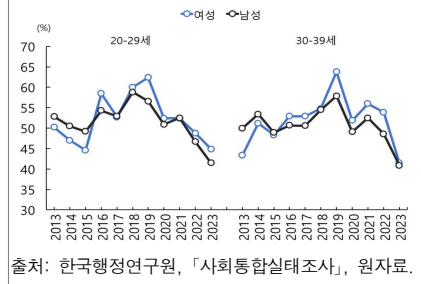


### [9~10쪽] 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 갈등인식이나 정책태도의 경우, 청년세대 내 남녀 차이보다 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짐

- 2023년 20~30대 청년의 40% 이상이 우리 사회의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별 인식 차이는 크지 않고 시기적인 등락이 두드러짐
- 2022년 19~34세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삶의 중요 요소에서는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발견됨
  - 남성은 연애, 결혼, 출산·양육, 여성은 사회 기여를 중시

남녀 인식 차이(젠더갈등 심각성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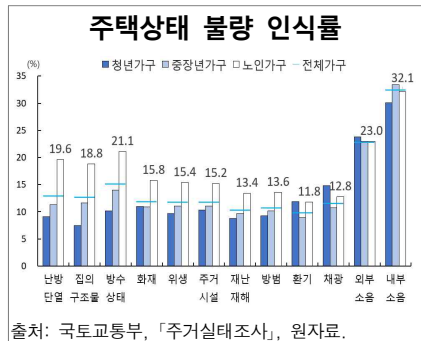


### ☞ [11쪽] 4. 청년세대의 젠더 격차

## Ⅱ 주거, 건강, 범죄·안전 영역

### 2022년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74.9%가 자가 거주, 도지역은 62.3%가 단독주택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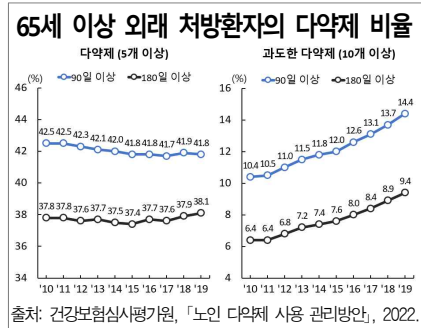
- 노인가구의 35.4%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여, 청년가구 9.8%, 중장년가구 15.4%에 비해 매우 높음
- 노인가구 97% 이상은 이사계획이 없으며, 22.1%는 현 거주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방수상태, 난방·단열, 집의 구조물을 불량으로 보며, 안전바닥재, 응급비상벨, 단차제거를 필요로 함



### ☞ [12~13쪽] 5. 노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문제

###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외래 처방환자의 5개 이상 다약제(90일 이상) 비율은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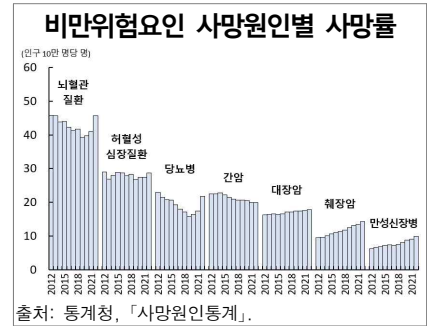
-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63.9%가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보유(평균 2.2개)
- 10개 이상 과도한 다약제(90일 기준) 사용 비율은 2010년 10.4%에서 2019년 14.4%로 빠르게 증가
- 노인 다약제 사용은 입원 위험도 1.24배, 노인주의 약물 사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험도 1.71배 증가



### ☞ [14~15쪽] 6. 노인의 다약제 및 노인주의약물 사용 실태

## 2022년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만 2천 명으로 전년대비 7.5%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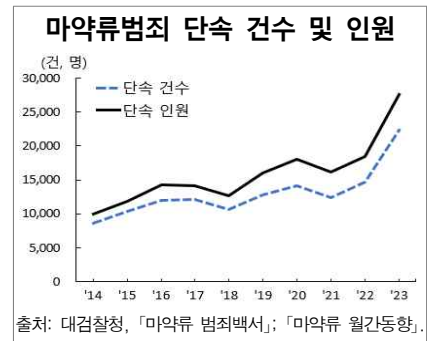
- 비만은 조기사망에 이르게 하는 5대 위험요인임
- 전체 사망자 중 비만위험요인 사망자 비율은 여자 31.5%, 남자 29.2%로 비만은 여자에게 더 크게 영향
- 주요 사망원인은 순환계통 질환 43.2%, 악성신생물(암) 37.4%, 내분비 질환 10.4% 순



### [16~17쪽] 7. 비만 관련 질병의 사망위험

## 2023년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2만 8천 명으로 10년간 2.8배 증가

- 행위유형별로는 공급 사범이 2023년 1만 2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3.6배 크게 증가
- SNS 등 온라인 판매광고 단속인원은 5년간 총 455명
- 연령별로는 10~20대 마약류 사범이 35.6%를 차지
-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44명에서 2021년 169명으로 10년간 3.8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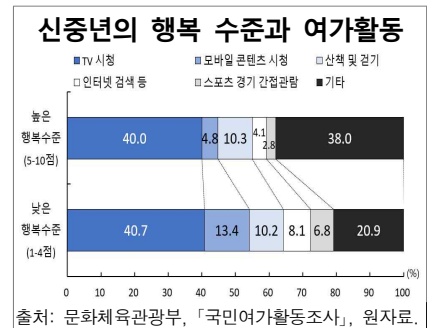


### [18쪽] 8. 마약류 오·남용 실태

## Ⅲ 여가, 주관적 웰빙, 노동, 생활환경 영역

50~64세 신중년은 비활동적 여가 참여가 많지만, 만족도는 활동적 여가에서 높으며,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은 보다 단조로운 여가활동에 치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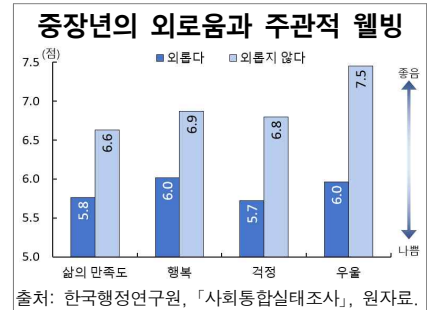
- 2023년 신중년의 일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이며, 월평균 여가비용은 21.4만원임
- 참여 1순위 여가활동 기준으로, 상위 5개 여가활동이 낮은 행복 수준 여성의 92.4%를 차지함
- '아무것도 안하기'는 낮은 행복 수준 여성의 8.3%인 반면, 높은 행복 수준 여성은 0.2%에 불과



### [19~20쪽] 9. 신중년의 여가와 행복

## 50대 여성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나, 사회적 지지는 취약하고 외로움 인지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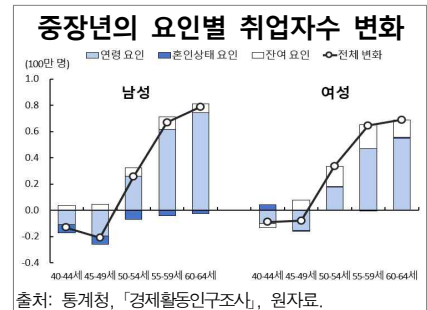
- 2023년 40~64세 중장년의 주관적 웰빙은 고령층 보다는 높고, 19~39세와는 비슷한 수준임
- 40~64세 중장년 중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 경험 점수가 1.49점 더 높음
- 60~64세는 사회적 교류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평균 0.85점 상승



### ☞ [21~22쪽] 10.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

##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2023년 301만 명 증가

-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남성은 인구·가족 구조 변화가 절대적 요인임
- 여성도 인구분포 변화가 주요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산업·직업 구조 변화 요인이 크게 작용
  - 사회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증가로 설명됨



### ☞ [23쪽] 11.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노동시장

## 2023년 상반기 기준, GPT로 보완 가능 일자리(16.0%)가 대체 가능 일자리(9.8%) 보다 많음

- 인공지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은 사무직, 관리직, 고임금, 30~40대에 많이 분포함
-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의 종류는 직업별로 필요한 과업의 인공지능 관련성 분포에 따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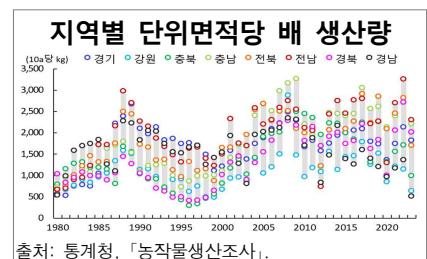
	낮은 평균	높은 평균
높은 표준편차	보완 잠재력	알 수 없음
낮은 표준편차	영향을 받지 않음	대체 잠재력

출처: ILO Working Paper 96, 2023.

### ☞ [24~25쪽] 12.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변화양상은 남부와 중부가 다르며, 연간 생산성의 변동폭 확대

- 농작물 생산의 주요 생산지 및 재배면적은 기후 변화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변화되고 있음
-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변화양상은 남부와 중부가 다르며, 최근으로 올수록 연간 생산성의 변동폭 확대



### ☞ [26쪽] 13. 기후변화와 농작물 생산 변화

# 「한국의 사회동향 2024」 주요 결과

## I 인구, 가구·가족, 사회통합 영역

### 1.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계봉오, 국민대학교]

**2020년 40대 미혼자 비율이 2000년 대비 남성 6.7배, 여성 5.7배 증가**  
**미혼자의 결혼 긍정인식은 감소 추세이고, 결혼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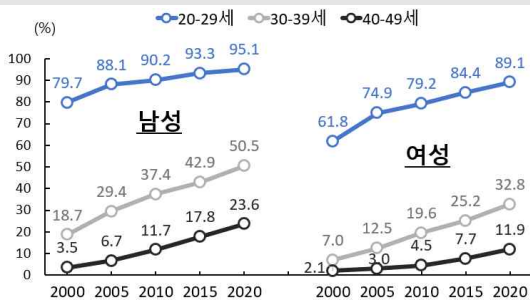
□ (규모) 미혼자\* 비율이 2000년 이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혼인 시기의 지연과 함께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 증가에 기인

\* 미혼자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유배우자는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혼, 사별 포함)으로 정의함

○ 2020년 40대 인구 중 미혼자 비율은 남성 23.6%, 여성 11.9%로, 2000년에 비해 각각 6.7배, 5.7배 증가했으며, 30대 성비는 지속적으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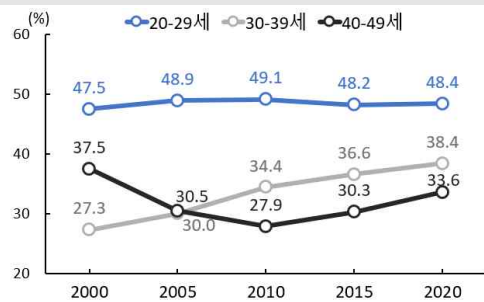
□ (특성) 남성은 미혼자가 유배우자보다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주로 일하였음)이 낮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음

인구수 대비 미혼자 비율,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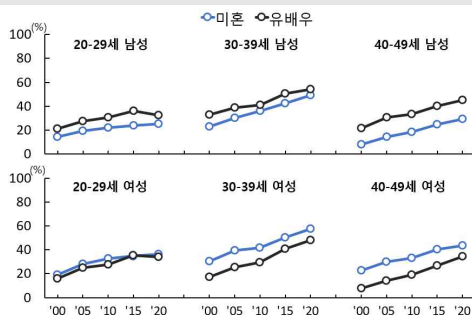
주: 1) 성 및 연령별 전체 인구 중 미혼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미혼자 중 여성 비율,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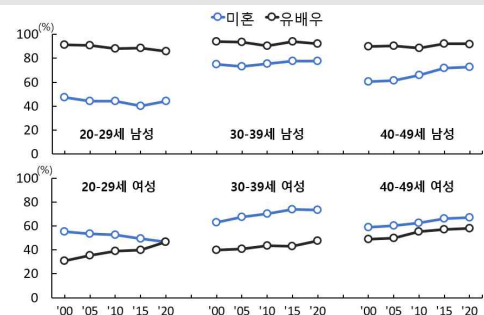
주: 1) 연령별 미혼자 중 여성 미혼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대졸자 비율 비교, 2000-2020



주: 1) 대졸자는 대학교(4년제) 졸업자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고용률 비교, 2000-2020



주: 1) 고용률은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시휴직', '일하지 않았음' 중에서, '주로 일하였음'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1% 표본)」 원자료, 각 연도.



□ (가치관) 20~40대 미혼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비전통적인 가족 형성 및 가사분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져, 40대의 긍정비율은 유배우자보다 평균('08~'23년) 약 27%p 낮음

○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의 경우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대의 경우 미혼자가 더 긍정적임

\* 40대 미혼자와 유배우자간의 태도 차이는 비혼동거의 경우 차이가 약화, 비혼출산의 경우 일정 차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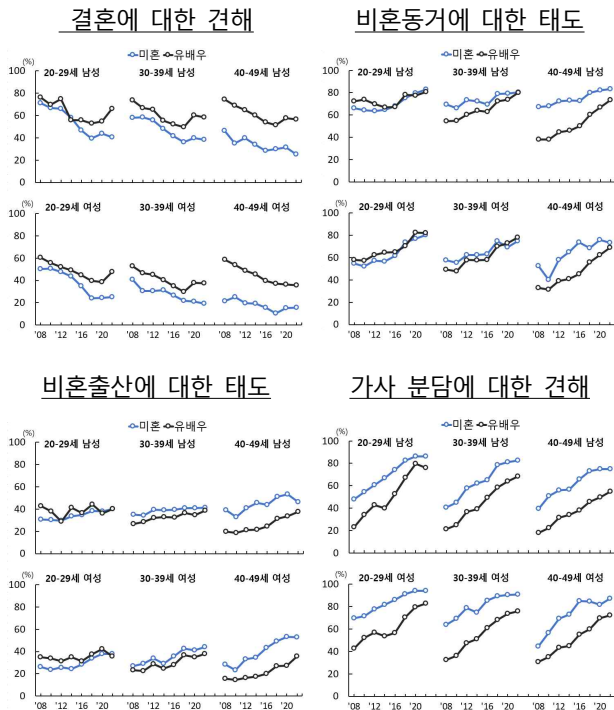
○ 가사 분담에 대해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자가 더 성평등적 태도를 보임

□ (결혼의향) 19~34세 미혼자의 결혼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고, 개인의 경제적 상태와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더 높음

○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고, 특히, 결혼, 자녀출산·양육, 연애 등 가족형성을 중요시함

\*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자는 결혼, 자녀출산·양육이 삶에서 갖는 중요성(1~4점)을 0.9~1.1점 더 높게 평가함

###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가치관, 2008-2022



주: 1) 결혼에 대한 견해는 결혼에 대해 '잘 모르겠다'를 포함한 7점 척도 중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로 응답한 비율임.  
 2) 비혼동거에 대한 태도와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는 각각 4점 척도 중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로 응답한 비율임.  
 3)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는 5점 척도 중 '부부가 공평하게', '남편이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미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결혼의향, 2022

연령	성별		가소득 분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24	79.4	67.4	0-25%	78.7	
25-29	80.2	71.1	25-50%	78.3	
30-34	80.0	72.5	50-75%	79.7	
교육수준	대졸 미만	77.8	65.9	75-100%	81.8
	대졸 이상	82.9	73.5	개인소득 분위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77.1	63.8	0-25%	76.6
	상용근로자 아님	83.2	75.7	25-50%	77.6
거주지	비수도권	79.9	71.5	50-75%	80.7
	수도권	79.8	68.4	75-100%	84.1
주관적 건강	좋지 않음	74.5	66.2	가구재산 분위	
	좋음	83.4	73.1	0-25%	7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3.2	55.2	25-50%	78.9
	중하층	75.0	66.4	50-75%	80.6
중간층	82.7	70.6	75-100%	81.0	
중상층	85.2	75.9	개인재산 분위		
상층	88.0	76.6	0-25%	76.6	
			25-50%	77.7	
			50-75%	81.1	
			75-100%	84.2	

주: 1) 결혼의향은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2점 척도(있다/없다) 중 '있다'로 응답한 비율임.  
 2) 통계치는 비혼 남성 6,662건, 비혼 여성 6,606건의 조사자료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집계한 수치임.  
 3) 음영은 유의수준 0.05에서 항목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특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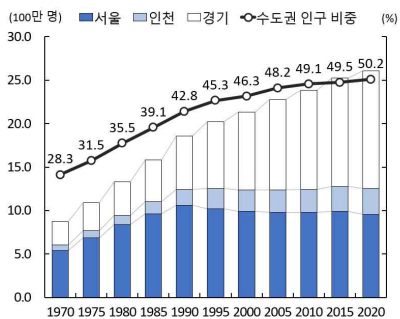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2.

## 2. 지역인구의 변화: 저출생과 인구이동 [황선재, 충남대학교]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불균형은 출생보다 지역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  
 20~30대 이동은 생애과정 수요(학업→직업→가족형성·주거→가족확대·정착)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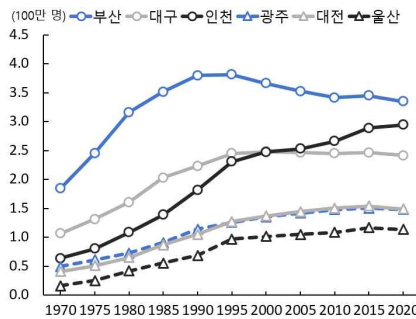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경 50.2%로 절반을 넘어섬
- 2020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 인구는 5년 전 대비 1.7~3.2% 감소
- 2000년 대비 2023년 지역별 평균 인구는 지방 중소도시인 시(市) 지역에서 증가(11.5%), 농촌 군(郡) 지역과 지방 대도시 구(區) 지역에서 감소(각각 -16.4%, -8.0%)

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1970-2020



주: 1) 상주 개념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기준임.  
 2)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6대 광역시 인구수, 1970-2020



주: 1) 상주 개념의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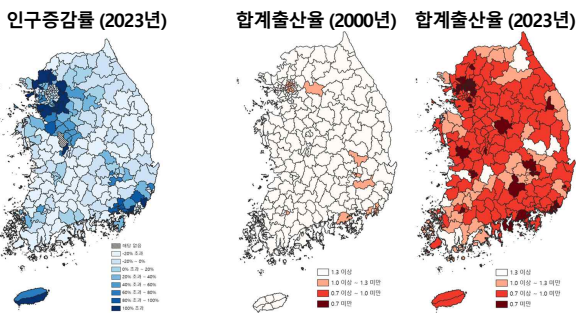
비수도권 지역별 평균 인구

	시	군	구
평균 인구(명)			
2000년	222,785	61,170	270,143
2023년	248,466	51,132	248,629
증감률(%)	11.5	-16.4	-8.0
표준편차(명)			
2000년	135,773	27,862	124,605
2023년	205,348	39,977	119,064
증감률(%)	51.2	43.5	-4.4
지역 수(개)			
2000년	49	81	36
2023년	50	77	36

주: 1) 평균 인구는 시군구 단위 주민등록 내국인 수를 산술평균한 값이며, 자치구가 아닌 구는 제외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불균형 문제에 있어 출생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임
- 2023년 현재 (초)저출생 현상은 농촌 혹은 도시 지역보다는 전국적 문제임
-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는 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함
- \* 수도권 인구 증가와 반대로, 2000년 대비 2023년 평균 출생아 수는 수도권이 더 많이 감소함

인구증감률 및 합계출산율, 2000, 2023



주: 1) 인구증감률은 주민등록 내국인 인구 기준 2000년 대비 2023년 증감률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지역별 평균 합계출산율 및 평균 출생아 수

	수도권			비수도권		
	시	군	구	시	군	구
평균 합계출산율(가임 여자 1명당 명)						
2000년	1.65	1.71	1.31	1.61	1.64	1.37
2010년	1.35	1.35	1.07	1.40	1.51	1.11
2023년	0.78	0.89	0.58	0.88	0.97	0.69
증감('00~'23년)	-0.87	-0.82	-0.73	-0.73	-0.67	-0.68
평균 출생아 수(명)						
2000년	5,642	1,265	5,057	3,095	671	3,442
2010년	4,424	469	3,591	2,308	453	2,288
2023년	2,430	216	1,600	1,135	187	1,027
증감('00~'23년)	-3,212	-1,049	-3,457	-1,960	-484	-2,415

주: 1)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산술평균한 값임.  
 2) 자치구가 아닌 구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지역 간 인구이동, 특히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지역 간 인구불균형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함

○ 2000, 2010, 2023년 기준, 수도권은 시, 군 지역에서 순유입(전입>전출)이 계속되며, 비수도권은 2023년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순유출되어 왔음

\* 순이동률의 절대적 크기가 점차 감소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권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난 순이동률의 일관적이고 누적적인 패턴이 2023년 현재 지역별 인구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임

○ 2023년 기준 전입이 더 많은 시도는 인천(+1.1%), 충남(+0.7%), 세종(+0.4%), 경기(+0.3%), 충북(+0.2%)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에 해당함

□ 2023년 국내 인구이동 총 이동자 수 중 20~30대 이동자는 44.9%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령대별로 이동 특징(목적지)이 다르게 나타남

○ (20~24세) 대학 진학 등 학업의 이유로 이동(수도권, 부산, 대전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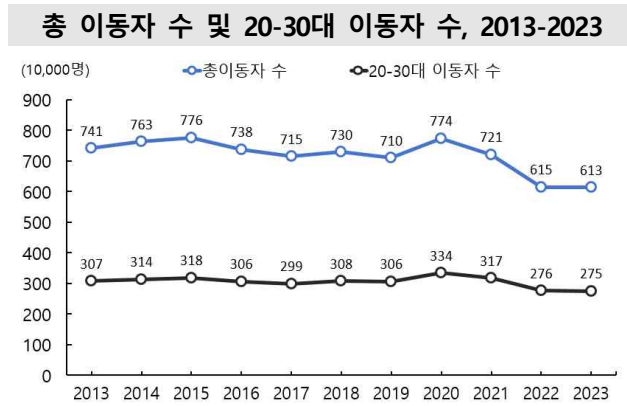
○ (25~29세) 학업에서 직업으로 이행되면서 이동(수도권, 세종, 충북, 충남 순유입)

○ (30~34세) 혼인과 출산, 이와 연계된 주택 문제가 복합 작용(서울이 순유출로 변화, 전남이 순유입으로 변화)

○ (35~39세) 직장, 주거와 함께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이 복합 작용(서울은 대규모 순유출, 다른 시도는 순유입으로 변화하거나 순유출 규모 완화)

(단위: %)	수도권			비수도권		
	시	군	구	시	군	구
2000년	2.78	1.98	-0.21	-0.66	-1.86	-0.85
2010년	1.89	1.00	-0.82	-0.06	-0.08	-0.76
2023년	0.30	0.70	-0.04	-0.03	0.11	0.01

(단위: 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울	9,980	19,260	9,963	7,002	-4,311	-6,833	-6,590	-5,755
인천	456	822	1,201	1,178	2,165	2,068	2,907	2,294
경기	1,999	1,145	3,326	579	4,405	5,772	3,448	3,123
강원	-466	-1,636	-1,280	-166	-224	71	96	17
충북	-91	-995	61	146	237	369	141	237
충남	-307	-1,436	1,089	384	869	826	843	629
대전	1,202	326	-123	-232	-230	-247	-371	-171
세종	-217	-44	229	534	466	307	131	149
전북	-1,654	-2,196	-1,586	-960	-315	-343	-78	17
전남	-1,945	-2,485	-1,197	-610	15	356	337	186
광주	-729	-1,134	-1,317	-1,186	-595	-761	-247	-267
제주	-616	-781	-347	-258	-45	78	155	47
경북	-1,447	-3,661	-1,427	-1,214	-630	-330	-418	-452
경남	-4,529	-4,881	-2,567	-1,299	-665	-206	-296	-225
대구	-1,600	-1,488	-2,598	-1,402	-94	62	453	596
울산	-1,021	-1,378	-79	-399	-28	-31	-86	-124
부산	985	562	-3,348	-2,097	-1,020	-1,158	-425	-301



주: 1) 지역별 평균 순이동률은 시군구별 순이동률을 산술평균한 값이며, 순이동률=(전입자 수-전출자 수)/연앙인구\*100.  
 2) 음영은 순유입 지역에 해당하며, 순이동자 수 = 전입자 수 - 전출자 수.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

### 3.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김주현, 충남대학교]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짐(13~18세는 26.1%)**  
**가족돌봄청년의 36.6%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 13~34세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15만 3,044명이 가구 내 가족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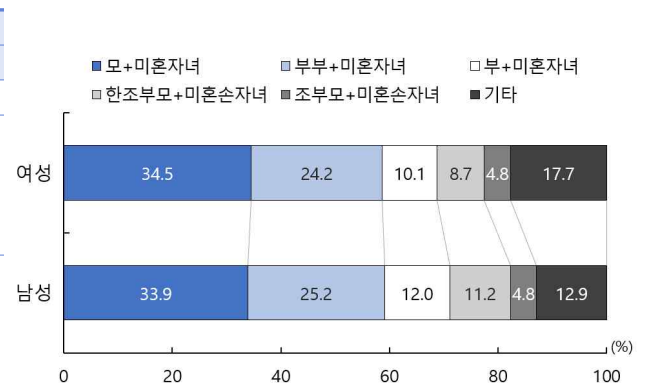
- \* (1) 가구 내 돌봄 필요(육체적 정신적 활동제한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족원이 있고,
- (2) 돌봄이 필요 없는 중장년(35~64세) 가족원이 없어 가구 내 돌봄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 (3) 돌봄이 필요 없는 13~34세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함

- (연령) 25~34세가 55.1%로 가장 많고, 학령기인 13~18세도 16.0%를 차지함
- (세대구성)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남

연령 및 교육정도별 가족돌봄청년 분포, 2020

	전체		남성		여성	
	(명)	(%)	(명)	(%)	(명)	(%)
전체	153,044	100.0	80,000	100.0	73,044	100.0
연령						
13-18세	24,453	16.0	12,934	16.2	11,519	15.8
19-24세	44,244	28.9	20,242	25.3	24,002	32.9
25-34세	84,347	55.1	46,824	58.5	37,523	51.4
교육정도						
중학교	11,247	7.3	5,852	7.3	5,395	7.4
고등학교	48,263	31.5	28,861	36.1	19,402	26.6
대학교(2,3년제)	35,042	22.9	18,007	22.5	17,035	23.3
대학교(4년제이상)	58,492	38.2	27,280	34.1	31,212	42.7

세대구성별 가족돌봄청년 분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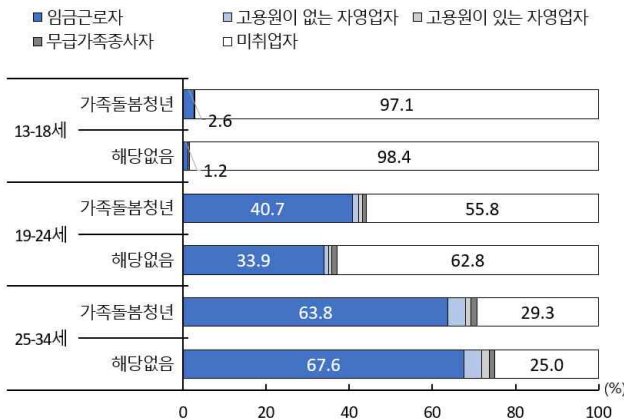
주: 1) (1) 가구 내 돌봄 필요 가족원이 있고, (2) 돌봄이 필요 없는 중장년(35~64세) 가족원이 없어 가구 내 돌봄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3) 돌봄 필요 없는 13~34세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함. 단, 돌봄 관계는 가족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육체적 정신적 활동제한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정 결과임.  
 2) 교육정도는 졸업인구 기준이며, 대학교(4년제이상)에는 대학원 과정을 포함함.  
 3) 세대구성 중 기타는 3% 미만의 세대 구성을 합산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 표본)」, 원자료, 2022.

□ 가족돌봄청년의 미취업자 비율은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청년에 비해 19~24세(55.8%)에서 7.0%p 낮지만, 25~34세에서는 29.3%로 4.3%p 더 높음

- (돌봄유형) 13~18세 가족돌봄청년 4명 중 1명(26.1%)은 직접 돌봄과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겪어지며, 19~34세에는 그 비율이 절반 이상(51.3%)으로 증가
- (돌봄기간) 가족돌봄청년의 61.5%가 6개월 이상 장기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 돌봄 비율이 증가(19~34세 70.6%)

### 가족돌봄청년 여부별 종사상 지위 분포, 2020



주: 1) 미취업자는 조사대상 일주일(2020.10.25.~10.31.)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경우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 표본)」, 원자료, 2022.

### 돌봄제공 유형 및 돌봄기간, 2022

	돌봄제공 유형			돌봄 기간	
	직접 돌봄만	경제적 부양만	직접 돌봄 + 경제적 부양	단기 돌봄	장기 돌봄
전체	52.2	6.6	41.2	38.5	61.5
13-18세	68.8	5.2	26.1	52.2	47.8
19-34세	41.2	7.5	51.3	29.4	70.6
19-24세	47.1	4.5	48.5	36.1	63.9
25-29세	40.6	7.6	51.8	25.7	74.3
30-34세	37.8	9.4	52.8	27.7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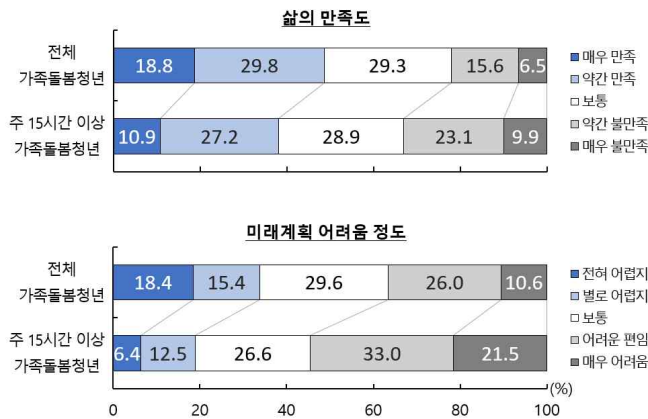
주: 1) 학교와 교육부 등 기관의 온라인 링크와 조사회사의 온라인 패널을 통해 확보한 19~34세 청년 중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응답 결과임.

2) 돌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단기 돌봄', 6개월 이상이면 '장기 돌봄'으로 분류함.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 가족돌봄청년의 22.1%가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며, 특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음(불만족 33.0%)
- (미래설계)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은 36.6%이고, 주 15시간 이상 돌봄인 경우는 절반 이상(54.5%)임
- (우울수준) 가족돌봄청년의 61.5%가 우울한 것으로 평가(우울점수 16점 이상)되며, 주 15시간 이상 돌봄인 경우는 23.8점으로 우울 수준이 매우 높음

###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미래설계 인식, 정신적 웰빙, 2020



	우울 비율 (%)	점수(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61.5	21.1	13.7
연령			
13-18세	53.7	19.9	15.4
19-34세	63.2	21.3	13.3
돌봄시간별			
주 15시간 미만	56.8	19.4	13.2
주 15시간 이상	68.9	23.8	14.1

주: 1)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임.  
 2) 미래계획 어려움 정도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임.  
 3) 우울 점수는 CES-D 척도 중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 11개 문항에 대해 '극히 드물다(0점)'부터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 4점 척도 응답값을 합산하여 11을 나누고 20을 곱한 값임.  
 4) 우울 비율은 가족돌봄청년 응답자 중에서 점수가 16점보다 높은 청년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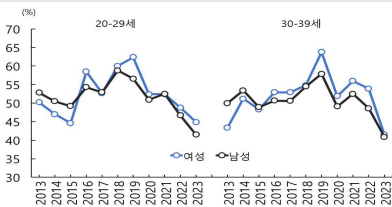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 4. 청년세대의 젠더 격차 [박선경, 고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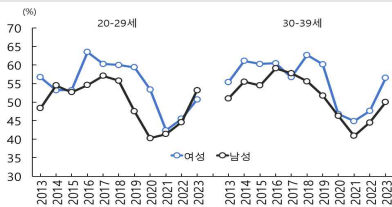
**갈등인식이나 정책태도의 경우, 청년세대 내 남녀 차이보다 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짐  
삶에 있어 남성은 연애, 결혼, 출산·양육을, 여성은 사회 기여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함**

- 2023년 20~30대 청년세대의 40%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즉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심각성 인식 차이는 청년세대 내 성별로는 크지 않고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기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나, 분배정책 선호와 같은 정책 태도에서도 성별 격차보다는 시기별 차이가 발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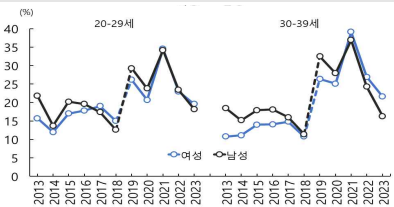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 2013-2023**



**성별 대우 불공정 인식,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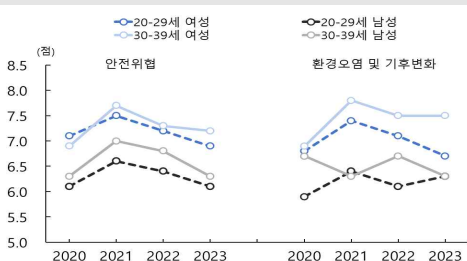
**분배정책 선호 비율,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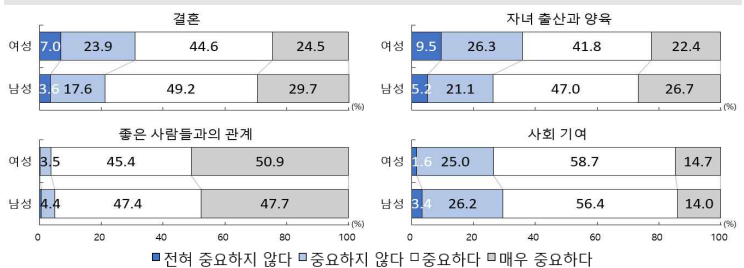
주: 1)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은 4점 척도 중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로 응답한 비율임.  
 2) 성별 대우 불공정 인식은 4점 척도 중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임.  
 3) 분배정책 선호 비율은 2013~2018년은 3점 척도(성장/분배/둘다) 중 '분배가 더 중요하다'로 응답한 비율이고, 2019년부터는 11점 척도(성장=0점, 분배=10점) 중 6~10점으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2.

- 사회문제 일부 및 삶의 중요 요소에서는 청년세대 내 성별 격차가 발견됨
  - 안전위협과 기후위기에 대해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함
  - 19~34세 청년 중에서,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은 남성이 더 중요시하고, 사회 기여는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미래 실현을 위한 조건에서도 일부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부모의 경제력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더 높음

**안전위협 인식, 2020-2023**



**삶의 중요성 인식, 2022**



주: 1) 분석 사례 수는 연도별 350~372명임.  
 2) 통계치는 안전위협 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11점 척도(없다=0점, 매우 크다=10점) 평균값임.  
 출처: 사회적가치연구원, 「한국인이 바라는 사회문제」, 원자료, 각 연도.  
 주: 1) 통계치는 만 19~34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하가 바라는 삶에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임.  
 출처: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 II 주거, 건강, 범죄·안전 영역

### 5. 노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문제 [고진수, 광운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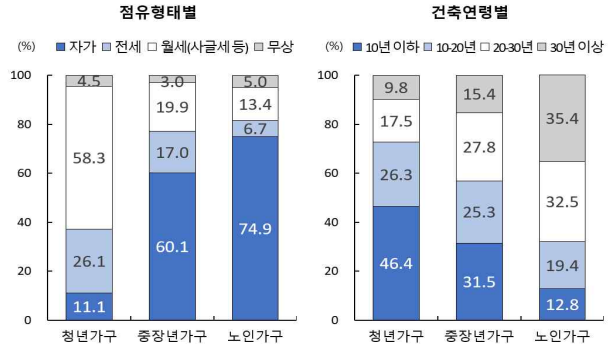
노인가구는 74.9%가 자가에 거주하며, 노후주택 거주 비율이 35.4%로 높음  
난방·단열, 의료시설 접근성이 불량하고, 안전바닥재, 응급비상벨이 필요하다고 인식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2022년 24.1%에서 2040년 43.1%까지 증가하여 향후 주요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가구는 자가(74.9%) 및 단독주택(40.9%, 도지역 62.3%)에 거주하며 1인당 주거면적이 넓은 편(일반가구 대비 1.3배)이지만, 30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 비중(35.4%)이 높음(2022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연령별 인구 및 가구 비중, 2022, 2040

	인구 (%)		가구 (%)	
	2022	2040	2022	2040
30세 미만	29.0	19.0	8.5	5.6
30-39세	13.3	10.6	14.5	10.2
40-49세	15.7	14.2	19.5	15.0
50-59세	16.7	14.3	22.3	16.6
60세 이상	25.4	41.8	35.2	52.6
65세 이상	17.4	34.3	24.1	43.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점유형태 및 건축연령별 가구 분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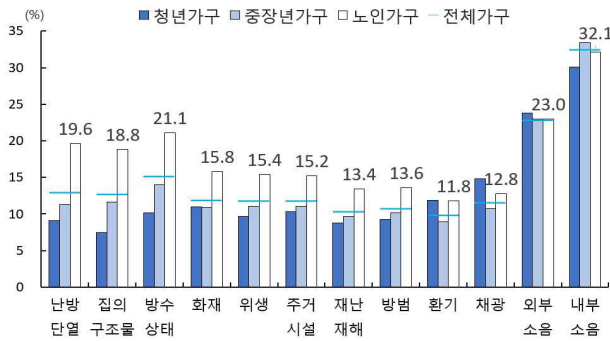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중장년가구는 35~64세,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임.  
2) 무상은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2024.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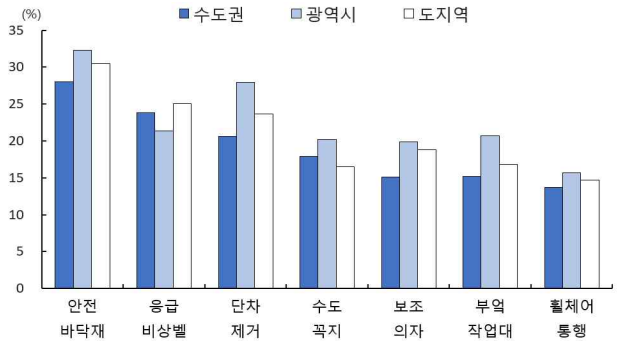
- 주택상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소음이지만, 노인가구의 경우 난방 및 단열(19.6%), 집의 구조물(18.8%), 방수상태(21.1%)를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더 불량한 것으로 판단함
- 고령에 따른 건강 특성과 더불어 노후주택 거주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 가구의 22.1%가 현 거주 주택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 항목별로는 주택 내 이동의 원활성 및 응급 시 대처에 필요한 안전바닥재, 응급비상벨, 단차제거 등의 개조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의료시설(31.7%), 상업시설(29.1%), 공공기관(28.6%) 등 접근성에 대한 불만족이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보다 높게 나타남

### 주택상태 항목별 불량 인식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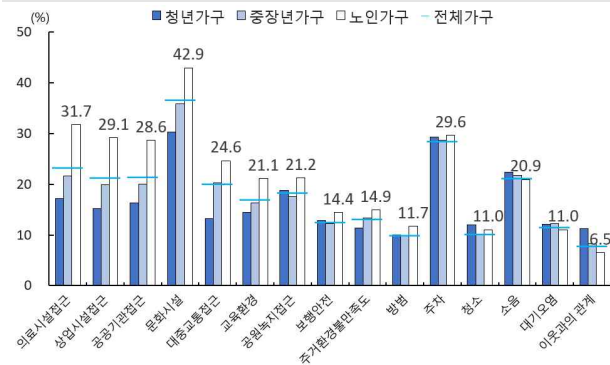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 중 '불량'과 '조금 불량'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중장년가구는 35~64세,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22.

### 노인가구의 항목별 주택개조 필요성,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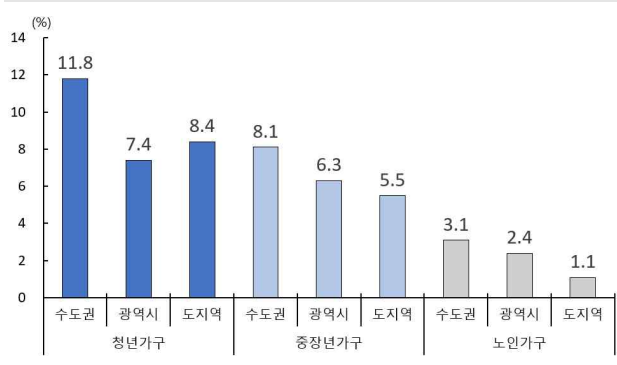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항목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22.

### 주거환경 항목별 불만족 비율, 2022



주: 1) 통계치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 중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22.

### 이사계획 가구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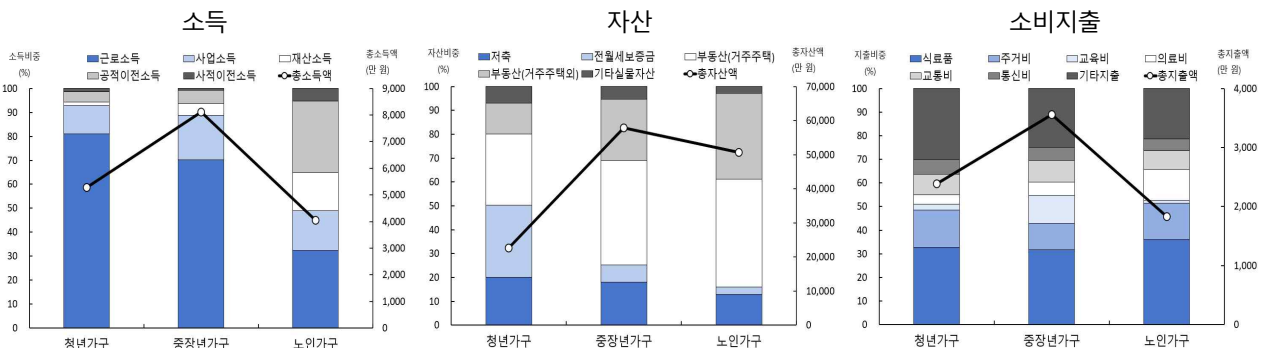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향후 5년 이내에 이사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22.

□ 노인가구의 이사계획 의향은 수도권 3.1%, 광역시 2.4%, 도지역 1.1%로 매우 낮음

○ 이사계획이 없고 주택개조 필요성이 있는 반면,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해 소득과 지출 수준이 낮아 노후주택 개선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소득, 자산,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2023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중장년가구는 35~64세, 노인가구는 65세 이상임.  
2) 가구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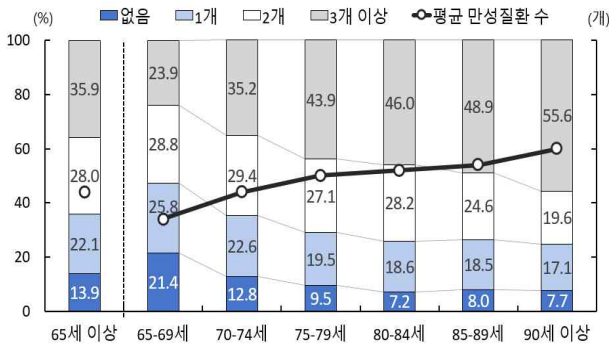


## 6. 노인의 다약제 및 노인주의약물 사용 실태 [지성환·정희원, 서울아산병원]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외래 처방환자의 5개 이상 다약제(90일 이상) 비율은 41.8% 다약제 및 노인주의약물 사용은 각각 입원 1.24배, 장기요양등급 판정 1.71배 위험도 증가**

-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진단받은 만성질환 수는 평균 2.2개로, 63.9%의 노인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의 90일 이상 다약제 사용 비율은 5개 이상 기준 41.8%, 10개 이상 기준 14.4%이며, 특히 10개 이상 과도한 다약제 사용 비율은 2010년 10.4%에서 2019년 14.4%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75세 이상 노인의 90일 이상 다약제 사용 비율은 2020년 이후 약 65%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1년 OECD 주요 15개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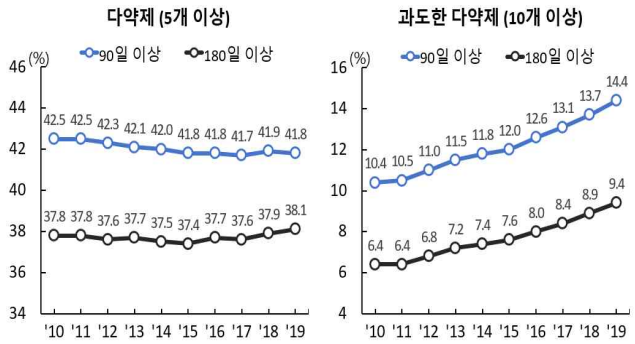
노인의 연령별 만성질환 수, 2023



주: 1) 만성질환 수는 의사진단 기준으로 응답한 값임.  
2) 평균 만성질환 수는 전체 응답자(만성질환이 없는 응답자 포함)를 대상으로 산출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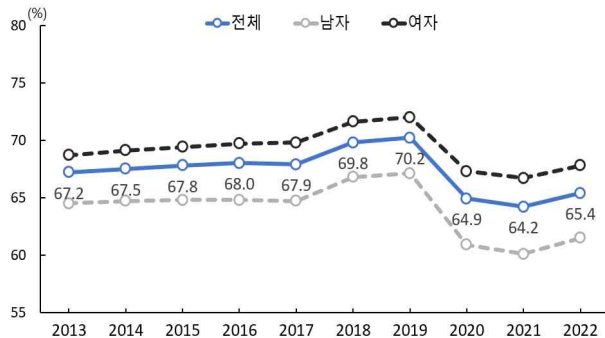
65세 이상 외래 처방환자의 다약제 비율, 2010-2019



주: 1) 진료일자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건강보험지급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경우 투여 의약품에 대상으로 상분코드 4자리가 동일하면 동일 의약품으로 간주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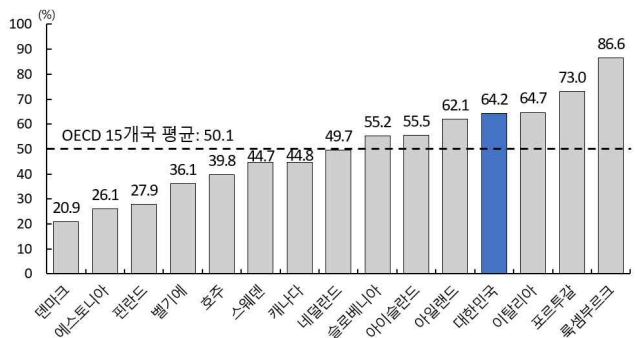
75세 이상 환자 다약제 비율, 2013-2022



주: 1) 통계치는 약제를 처방받은 75세 이상(1월 기준) 환자 수 대비 만성적으로(연간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의약품이 5개 이상인 75세 환자 수의 비율임.  
2) 의약품 개수는 세계보건기구 ATC 분류 4단계 코드 기준임.  
3)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작성함.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질통계」, 각 연도.

OECD 국가의 75세 이상 환자 다약제 비율, 2021



주: 1) 통계치는 약제를 처방받은 75세 이상(1월 기준) 환자 수 대비 만성적으로(연간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의약품이 5개 이상인 75세 환자 수의 비율임.  
2) 의약품 개수는 세계보건기구 ATC 분류 4단계 코드 기준임.  
3)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는 2017년, 핀란드는 2020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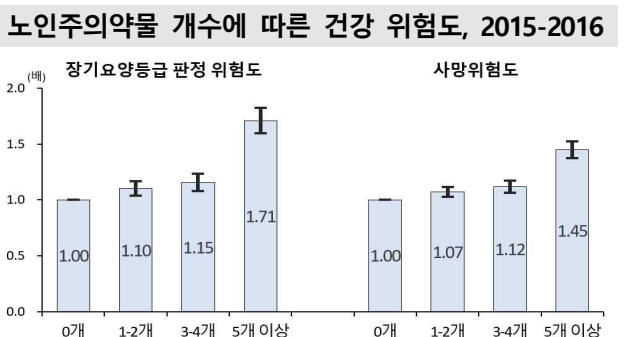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65세 노인의 1년간 처방 약제 개수(90일 이상 기준)에 따라 이후 1년간 의료 이용에 차이 발생
  - (입원 경험률) 5개 미만 약제 사용 그룹의 입원 경험률은 17.0%인데, 5개 이상 그룹은 22.9%, 10개 이상 그룹은 31.1%로 각각 1.24배, 1.62배 높음
  - (응급실 방문 경험률) 5개 이상 다약제, 10개 이상 다약제 그룹의 응급실 방문 경험률이 5개 미만 그룹보다 각각 1.26배, 1.74배 더 높음
- 노인주의약물\* 복용 개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사망 위험도 증가
  - \* 노인주의약물은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년)은 65세 이상의 노인 이면서, 1)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1개라도 2) 노인주의약물이 포함되어거나 3) 병용금지 또는 중복처방 약제가 처방된 경우를 다약제 중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기준'으로 제시
  - 노인주의약물을 5개 이상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1.71배, 사망 1.45배 위험도 증가

**다약제 사용과 건강결과 연관성, 2017-2019**

	환자 수 (천 명)	환자 비율(%)			연관성 오즈비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	입원	응급실 방문	사망
5개 미만 약제	1,602	17.0	8.8	0.7	1	1	1
5개 이상 약제	1,117	22.9	12.1	1.2	1.24	1.26	1.63
10개 이상 약제	237	31.1	17.8	2.1	1.62	1.74	2.63

주: 1) 65세 이상 외래 처방 기준으로 9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 약 3백만 명 대상임.  
 2) 코로나19 영향을 피하고자, 2017년 첫 외래 방문일로부터 1년간(2017~2018년 중 1년) 약제 처방 개수에 따른 이후 1년간 건강결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임.  
 2) 오즈비는 성별, 연령, 의료보장, 동반질환, 외래방문횟수를 보정한 결과로, 건강 결과별로 5개 미만 환자 비율 대비 다약제 및 과도한 다약제 그룹의 환자 비율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 다약제 사용 관리방안」, 2022.



주: 1) 2015~2016년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노인 중 1회 이상 외래 처방을 받은 5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 한 번이라도 1년간 누적 28일 이상 노인주의약물을 처방받은 경우를 1개 이상 약물 사용으로 정의함.  
 3) 성별, 건강보험 종류, 지역, 노쇠점수, 다약제를 보정한 결과이며, 95% 신뢰 구간을 함께 제시함.  
 출처: 한국보건연구연구원, 「노인의 다약제 처방 및 소비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행동 강제학적 대안 고찰」, 2023

- 다약제 복용에 따른 약물상호작용 등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처방연쇄\* 악순환 예방을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다약제 사용 중재 서비스 시행
  - \* (이해를 위한 예시) 퇴행성 관절염 → A병원 방문, 통증조절약 처방 → 부작용으로 부종 → B병원 방문, 이뇨제 처방 → 부작용으로 빈뇨 → C병원 방문, 소변횟수 조절약 처방 →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 D병원 방문, 어지럼증 개선약 처방

**국가별 다약제 사용 중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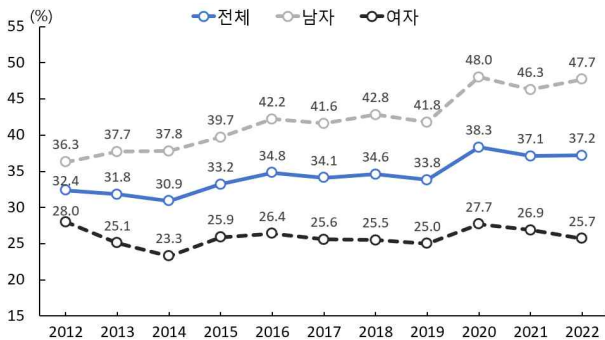
국가	서비스명	국가	서비스명
미국	▶ 약물치료관리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MTM)	일본	▶ 단골약사, 약국 제도
영국	▶ 체계적 약물검토서비스 (Structural Medication Review, SMR) ▶ 가정방문 약물관리검토 (Home Medicines Reviews, HMRs)	대한민국	▶ 의약품안심서비스(DUR)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호주	▶ 요양시설 약물관리검토 (RMMRs) ▶ 나의 건강기록 (My Health Record)		
캐나다	▶ [온타리오 주] 약물사용관리 프로그램 (MedsCheck)		

## 7. 비만 관련 질병의 사망위험 [이석민,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년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만 2천 명으로 전년대비 7.5% 증가  
사망원인은 순환계통 질환 43.2%, 악성신생물(암) 37.4%, 내분비 질환 10.4%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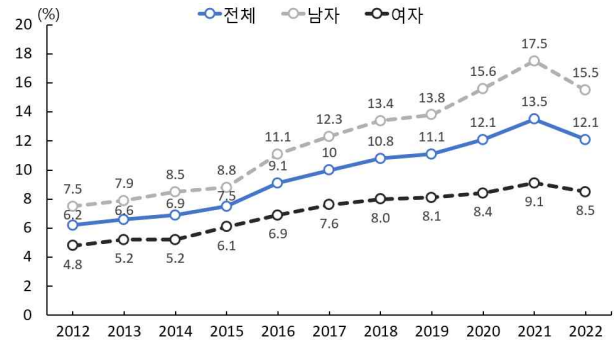
- 2022년 19세 이상 성인의 37.2%가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10년간 11.4%p 증가
  - 2022년 청소년 비만율(성장도표 95백분위 이상)은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 2.1배, 여학생 1.8배 증가

성인 비만유병률, 2012-2022



주: 1) 비만유병률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분율임.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3) 전문조사원이 측정한 키와 몸무게 기준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청소년 비만율,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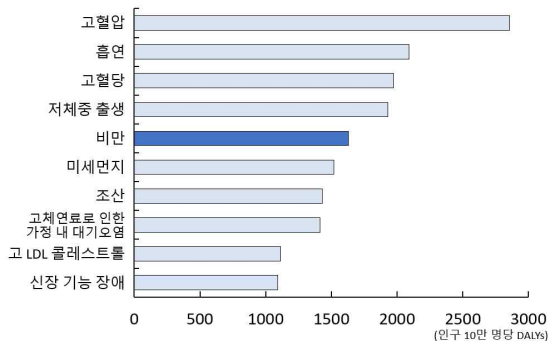


주: 1)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인 분율임.  
2) 조사대상은 조사 당해연도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임.  
2) 응답자가 자기기입한 키와 몸무게 기준임.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 비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 5위이며, 2022년 비만이 위험요인인 질병의 사망자 수는 112,161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

- 비만 위험요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8.8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 추세
  - \* '비만 위험요인 사망'은 비만과 관련있는 사망원인코드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비만으로 인한 사망'과 다름

주요 질병 부담 위험요인, 2021



주: 1) DALYs(Disability-adjusted life years)는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 연수와 장애 경험 연수의 합계임.  
출처: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2021, GBD Results, 2024.

비만 위험요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12-2022



주: 1) '비만 위험요인 사망'은 비만과 관련있는 사망원인코드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집계한 수치로서, '비만으로 인한 사망'과 다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2022년 성별 인구 10만 명당 비만 위험요인 사망률은 남자(224.9명)가 여자(212.7명)보다 더 높음

- 다만, 전체 사망자 중 비만 위험요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자(31.0%)가 남자(29.2%)보다 더 높아, 비만이 미치는 영향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음
- 비만은 조기사망에 영향을 주면서 사망자 비율이 60세 전후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에는 비만 외의 요인에 따른 사망자 비율이 더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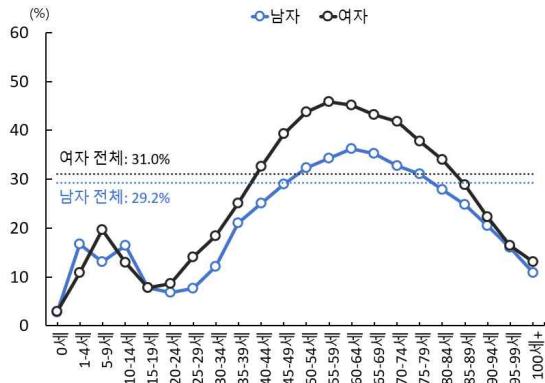
**비만 위험요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22**

	사망자 수 (명)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명)		
	남자	여자	성비	남자	여자	성비
전체	57,446	54,715	1.0	224.9	212.7	1.1
15세 미만	65	45	1.4	2.1	1.5	1.4
15~24세	68	56	1.2	2.4	2.2	1.1
25~34세	232	196	1.2	6.6	6.1	1.1
35~44세	1,094	758	1.4	29.1	21.0	1.4
45~54세	3,876	2,374	1.6	89.5	56.0	1.6
55~64세	9,824	4,604	2.1	239.6	112.4	2.1
65~74세	13,760	7,564	1.8	550.2	276.6	2.0
75~84세	18,537	17,801	1.0	1,572.5	1,063.9	1.5
85세 이상	9,990	21,314	0.5	3,803.2	3,229.3	1.2

주: 1) 사망자 수 전체에는 연령미상 여성 사망자 3명을 포함함.  
 3) 사망률=(비만 위험요인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4) 성비=남자 통계치÷여자 통계치.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2.

**비만 위험요인 사망자 비율, 2022**



주: 1) 통계치는 해당 집단의 사망자 수 대비 비만 위험요인 사망자 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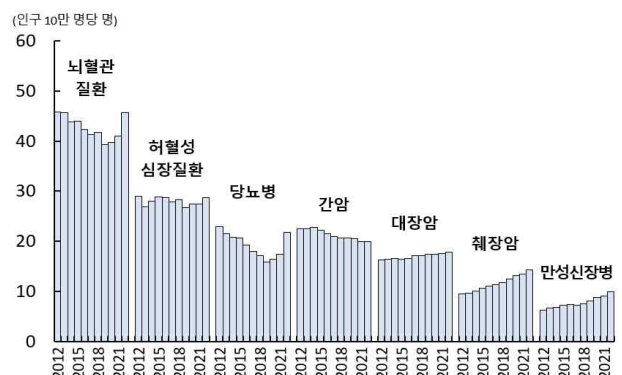
□ 2022년 비만 위험요인 사망자 중 43.2%는 순환계통 질환, 37.4%는 악성 신생물(암), 10.4%는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으로 사망함

- 비만 위험요인 사망의 상위 7개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간암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이며, 특히 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은 감소세 이후 2020년부터 급증

**비만 위험요인 사망자의 사망원인별 분포, 2022**

사망원인(ICD-10 code)	사망자 수 (명)	구성비 (%)
전체	112,161	100.0
신생물(C00-D48)	41,980	37.4
악성신생물(C00-C97)	41,930	37.4
- 간 및 담관암	10,212	
- 대장암	9,164	
- 췌장암	7,325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88)	11,696	10.4
- 당뇨병	11,178	
순환계통 질환(I00-I99)	48,446	43.2
- 뇌혈관 질환	23,449	
- 허혈성 심장질환	14,739	
비노생식계통 질환(N00-N98)	7,676	6.8
- 만성 신장병	5,050	

**비만 위험요인 사망원인별 사망률, 2012-2022**



주: 1) 통계치는 비만과 관련된 사망원인코드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집계한 것으로 사망원인통계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고혈압성 질환(3,971명)의 경우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자에서 본태성 고혈압 등의 비만과 관련없는 사망원인 사망자는 제외함.  
 2) 표에서는 사망자 수가 5천 명 이상인 사망원인만 제시하였고, 그림은 상위 7개 사망원인의 시계열을 제시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2.

## 8. 마약류 오·남용 실태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2만 7천 명으로 10년간 2.8배 증가  
마약류 공급 행위가 크게 늘었고, 10~20대 마약류 사범이 35.6%를 차지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169명으로 10년간 3.8배 증가**

□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인원은 2023년 2만 7,611명으로 10년간 2.8배 증가

마약류범죄 단속건수 및 단속인원,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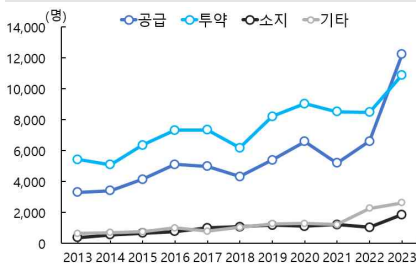


주: 1)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메타돈, 펜타닐 등이 포함되며,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트암페타민, MDMA, LSD, 날부핀, 텍스트로메토르판, 펜플루라민, GHB, YABA, 프로토킵 등이 있고, 대마에는 대마초, 해시시 등이 포함됨.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마약류 월간동향」, 각 연도.

□ 마약류 공급 사범은 2023년 1만 2,226명으로 10년 전보다 3.6배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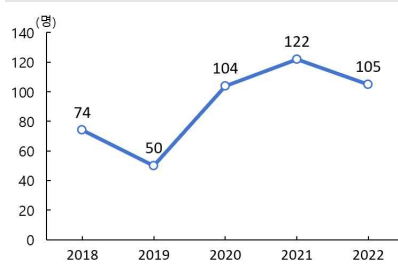
-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판매광고로 5년간(2018~2022년) 총 455명 단속
- 10~2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여 2023년 20대 30.3%, 10대 5.3%를 차지

행위유형별 단속인원,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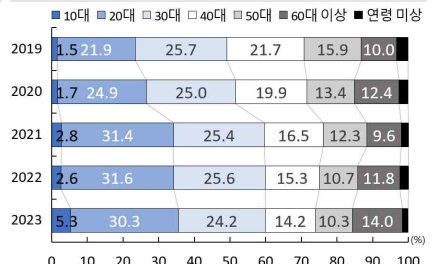


주: 1) 공급범죄는 마약류의 밀조(제조), 밀수(수입), 밀매(판매), 밀경(재배)을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각 연도.

온라인 판매광고 단속인원, 2018-2022



마약류사범 연령 분포, 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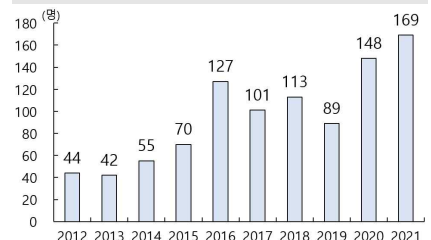


□ 약물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255명에서 2021년 559명으로 10년간 2.2배 증가

-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44명에서 2021년 169명으로 3.8배 증가\*

\* 졸피뎀 등 수면제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사망 증가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사망자 수, 2012-2021



출처: 통계개발원, 「약물로 인한 사망통계 분석」, 2023.

### Ⅲ 여가, 주관적 웰빙, 노동, 생활환경 영역

#### 9. 신중년의 여가와 행복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0~64세 신중년은 비활동적 여가 참여가 많지만, 만족도는 활동적 여가에서 높음  
행복 수준이 낮은 집단은 보다 단조로운 여가활동에 치중되어 있음

□ 2023년 50~64세 신중년\*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1순위로 꼽은 여가활동은 TV 시청(40.0%)이 압도적이고, 두 번째로 많은 산책 및 걷기(10.3%) 외에 나머지 3~5위는 비활동적 여가임

\* 50~64세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1/4규모로, 생산가능 인구의 1/3을 차지함

- 신중년이 1순위로 만족했다고 꼽은 여가활동은 활동적인 여가가 주를 이루며, TV 시청은 8.5%에 그쳐 참여활동 응답 비율과는 다른 양상임
- 특히, 등산(5.3%)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다른 세대(2.7%)보다 2배 가량 높음

15~49세	신중년 (50-64세)	65세 이상
TV 시청 (17.4%)	TV 시청 (40.0%)	TV 시청 (55.5%)
모바일 콘텐츠 시청 (17.3%)	산책 및 걷기 (10.3%)	산책 및 걷기 (12.3%)
인터넷 검색 등 (9.3%)	모바일 콘텐츠 시청 (5.0%)	종교 활동 (2.0%)
게임 (6.3%)	인터넷 검색 등 (4.2%)	요리/다도 (1.9%)
영화관람 (5.3%)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2.9%)	낮잠 (1.7%)

주: 1)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88개 항목 중 1순위라고 응답한 여가활동 유형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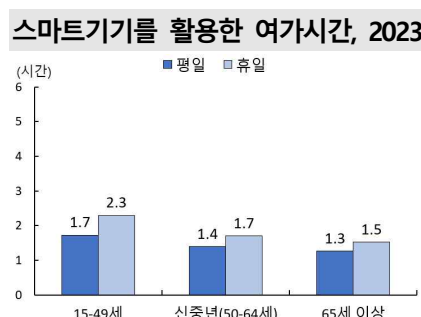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3.

15~49세	신중년 (50-64세)	65세 이상
영화관람 (7.7%)	산책 및 걷기 (8.9%)	TV 시청 (18.2%)
모바일 콘텐츠 시청 (7.2%)	TV 시청 (8.5%)	산책 및 걷기 (16.6%)
게임 (6.0%)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6.5%)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5.7%)
헬스 등 (5.5%)	등산 (5.3%)	종교활동 (5.6%)
친구만남/이성교제 등 (4.4%)	골프 (5.1%)	가족 및 친지방문 (3.6%)

주: 1) 지난 1년 동안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의 1순위 응답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3.

□ 2023년 신중년의 일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이며, 월평균 여가비용은 21.4만 원으로 65세 이상(12.7만 원)보다 많고 15~49세와 비슷함



주: 1) 여가시간은 지난 1년 동안 평일과 휴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대한 평균값이며, 월평균 여가비용은 지난 1년간 여가생활을 위해 지출한 한 달 평균 금액의 평균값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신중년은 행복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다양한 종류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행복 수준에 따른 여가참여 양상 차이가 매우 큼

○ (전체)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5~10점)은 낮은(1~4점) 집단에 비해 모바일 콘텐츠 시청(-8.6%p), 인터넷 검색(-4.0%p), 스포츠 경기 간접 관람(-4.0%p) 등 비활동적 여가활동의 비중이 낮음

\* 지난 1년간 참여 1순위 여가활동 상위 5개와 그 외의 항목을 기타로 분류하여 비교함

- 제시된 5개 여가활동이 낮은 행복 집단의 79.1%에 달하는 것과 달리, 높은 행복 집단(62.0%)은 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함을 알 수 있음

○ (남성)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6개와 나머지 기타 활동으로 살펴봤을 때, 낮은 행복 집단에 비해 모바일 콘텐츠 시청(-14.3%p),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5.2%p)은 더 낮고, 마찬가지로 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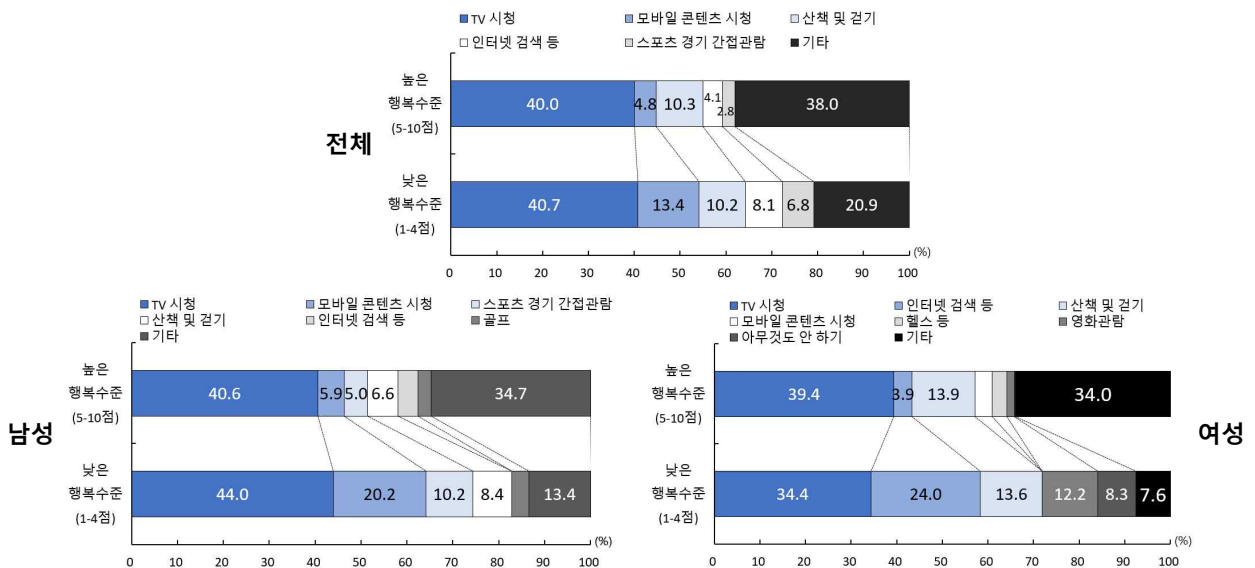
○ (여성) 여성의 경우 행복 수준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행복 수준이 낮은 여성은 인터넷 검색(20.1%p), 영화관람(10.6%p) 비율이 높고, 특히, 아무것도 안하기가 8.3%로 나타남(높은 행복 수준 여성은 0.2%에 불과)

- 참여 1순위 상위 5개\* 여가활동이 낮은 행복 수준 여성의 92.4%를 차지하여, 높은 행복 수준 여성(7개, 66.0%)에 비해 매우 단조로운 여가활동 행태를 보여줌

\* 모바일 콘텐츠 시청, 헬스가 0.0%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개 여가활동이 전체 92.4%를 차지

### 신중년의 행복 수준과 여가활동, 2023



주: 1) 10점 척도(1점: 매우 불행~10점: 매우 행복)로 측정된 현재 자신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1~4점), 높은(5~10점) 신중년들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1순위 응답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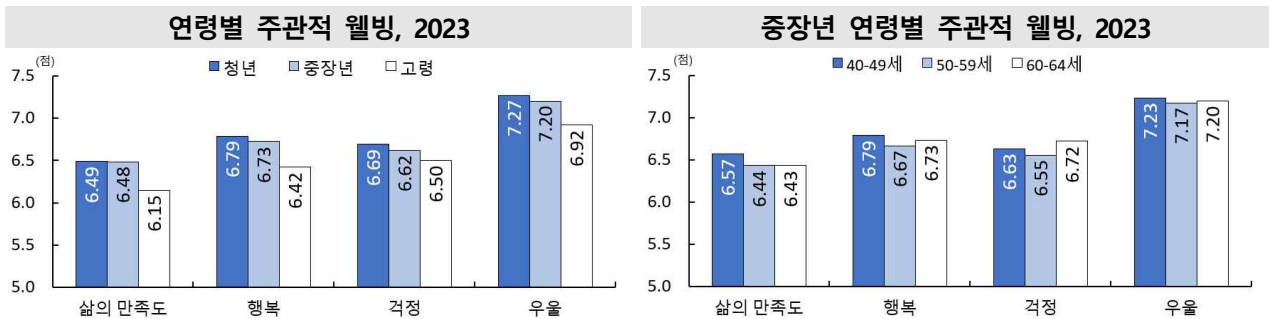
## 10.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40~64세 중장년 중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 경험 점수가 1.49점 더 높음  
 50대 여성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나, 사회적 지지는 취약하고 외로움 인지율이 높음  
 60~64세는 사회적 교류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평균 0.85점 상승

- 중장년은 광범위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동시에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임
  -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로 간주되어 청년이나 노년에 비해 덜 주목 받아 온 40~64세\* 중장년에 대한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을 분석함\*\*

\* 통계청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40~64세를 중장년으로 정의함  
 \*\*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인 '행복감', 부정 정서인 '걱정', '우울'을 측정하고,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교류'(객관적 측면), '사회적 지지'(기능적 측면), '외로움 인지'(주관적 측면)를 측정함

- 중장년의 주관적 웰빙은 고령층보다는 높고, 19~39세와는 비슷한 수준임
  - 중장년 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웰빙이 낮으며, 부정정서 경험은 50대에서 가장 높음(걱정: 40대 6.63점, 50대 6.55점, 60대 초반 6.72점)



주: 1)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고령은 65세 이상임.  
 2) 각 항목별 0~10점 척도의 평균값이며, 우울과 걱정은 역코딩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정서 경험 비율이 낮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4.

- 50대 여성은 사회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나(가족·친척 96.8%), 사회적 지지는 가장 취약하고(목돈 79.9%) 외로움 인지율(19.1%)도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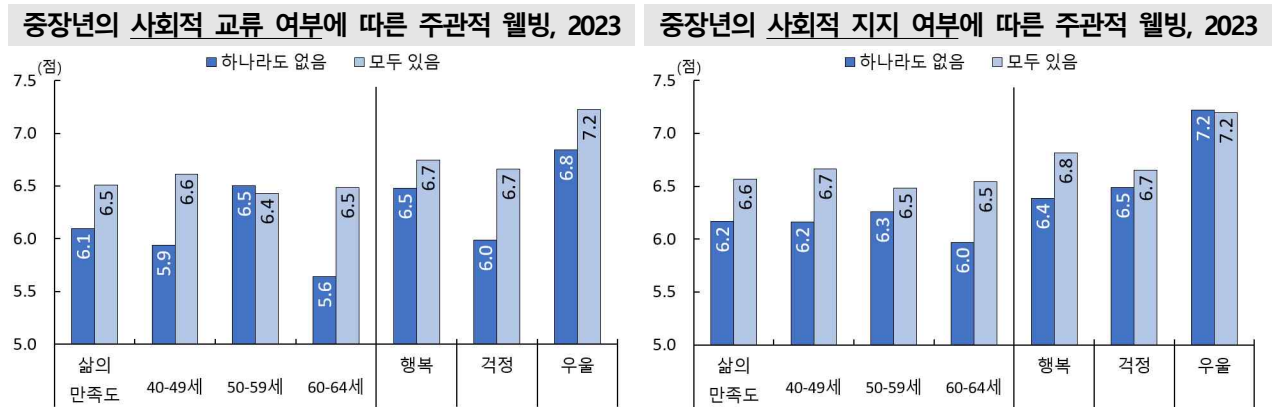


주: 1) 외로움 인지율은 "나는 외롭다"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4.



- 중장년에서 사회적 교류가 하나라도 없는 집단이 모두 있는 집단보다 주관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낮으나, 하위 항목별로는 일부 차이가 있음
  - 사회적 교류가 모두 있는 사람이 주관적 웰빙이 높지만, 50대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회적 지지가 모두 있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더 높으나, 부정정서의 경우 사회적 지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
  - 60~64세는 사회적 관계 유무에 따른 주관적 웰빙 평균값의 차이가 40대, 50대보다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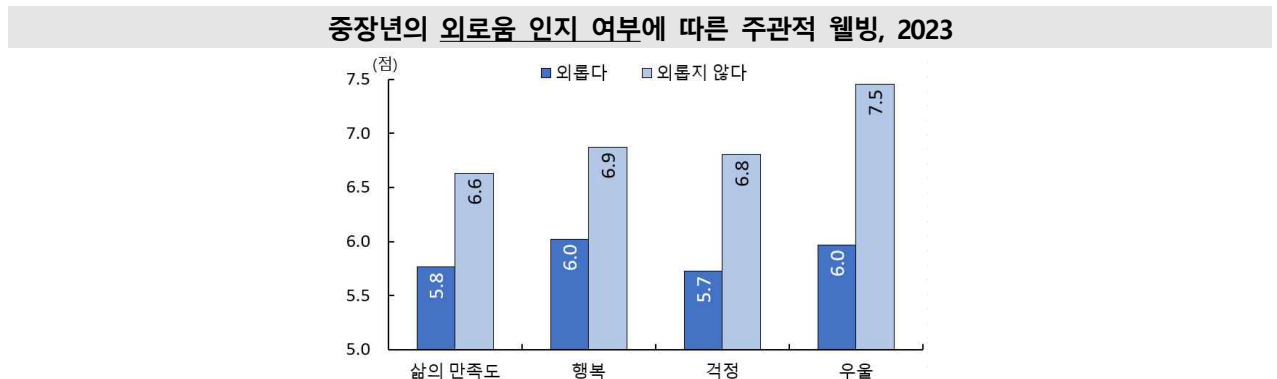
\* 사회적 교류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40대 0.67점, 50대 -0.07점, 60~64세 0.85점



주: 1) 사회적 교류 여부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동거자 제외)’, ‘가족이나 친척 이외(업무상 접촉 제외)’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와 모두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함.  
 2) 사회적 지지는 목돈이 필요할 때,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할 때, 우울할 때의 세 항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하나라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과 모두 있는 사람의 비율임.  
 3)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0~10점 척도의 평균값이며, 걱정과 우울은 0~10점 척도의 역코딩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 비율이 낮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4.

- 사회적 교류·지지보다 외로움 인지 여부에 따라 주관적 웰빙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외로운 사람은 부정정서 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외로움 인지 여부에 따른 주관적 웰빙 차이: 삶의 만족도 0.87점, 행복 0.85점, 걱정 1.08점, 우울 1.4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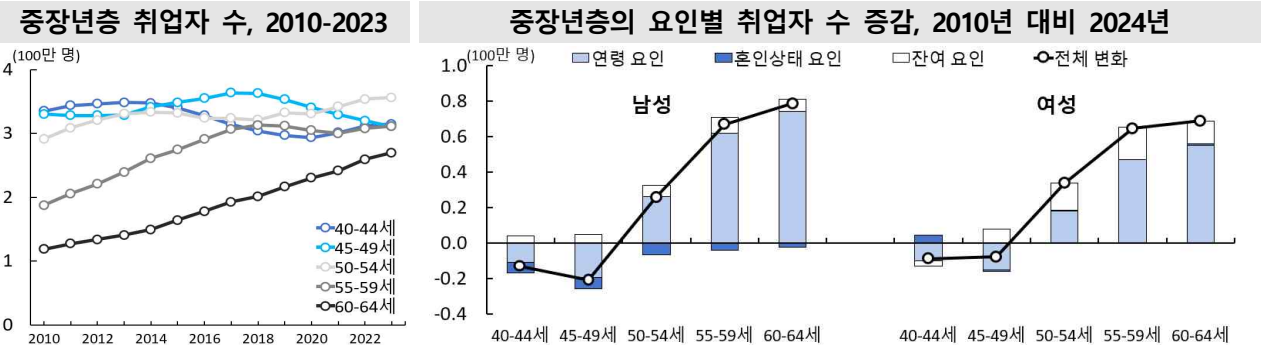


주: 1) “나는 외롭다”는 질문에 대해 ‘외롭다’는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 ‘외롭지 않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사람임.  
 2)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0~10점 척도의 평균값이며, 걱정과 우울은 0~10점 척도의 역코딩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 비율이 낮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4.

# 11.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노동시장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현지, 서울대학교]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2023년 301만 명 증가  
남성은 주로 인구·가족 구조 변화, 여성은 산업·직업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침**

-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 명으로 2010년 1,263만 명에 비해 301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340만 명)에 기인
    - 한편, 베이비부머의 세대 이동 등으로 55세 이상 인구수 386만 명이 증가했고, 여성 고용률이 55~59세(+14.2%p), 60~64세(+13.7%p)에서 현저히 증가
  - 중장년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을 1) 연령집단 구성 변화, 2) 혼인상태 변화로 분석한 결과, 남녀 간 주된 변화요인이 다르게 나타남
    - (남성) 인구 규모 및 미혼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가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
    - (여성) 인구분포 변화가 주요하지만\*, 산업·직업 구조 변화 영향이 크게 작용
- \* 여성 취업자 수 증감에 대한 연령요인 설명력은 남성에 비해 낮으며, 특히 50~54세는 53%에 그침



주: 1) '전체 증감'은 2010년 9월 대비 2024년 9월의 취업자 수 증감으로, 아래의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함.  
 i) '연령 요인'은 연령분포(규모, 비율)가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자 수 증감임.  
 ii) '혼인상태 요인'은 연령별 혼인상태별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취업자 수 증감으로, 연령과 혼인상태의 교차항을 통제한 결과임.  
 iii) '잔여 요인'은 잔여 변화는 연령분포와 혼인상태 변화를 통제하고 남은 취업자 수 증감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출처: (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9월.

- 10년간(2014~2023년) 중장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 및 직업 구조 변화\*
  - \*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직업) 소분류를 기준으로 취업자 수 상위 산업(직업), 취업자 수 최대 증가 및 감소 산업(직업)을 분석한 결과임
  - 중장년 여성 취업자 증가는 사회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증가로 설명됨
  - 40~50대 남성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고, 남녀 공통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남성 운전원, 여성 조리사)는 고령화 진행
  - IT 부문의 성장으로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남녀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으나, IT 및 관련 전기전자 전문직 및 기술직의 증가는 남성에게 국한됨

## 12.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전병유, 한신대학교]

인공지능 영향도가 높은 직업은 사무직, 관리직, 고임금, 30~40대에 많이 분포  
GPT로 보완 가능한 일자리(16.0%)가 대체 가능한 일자리(9.8%) 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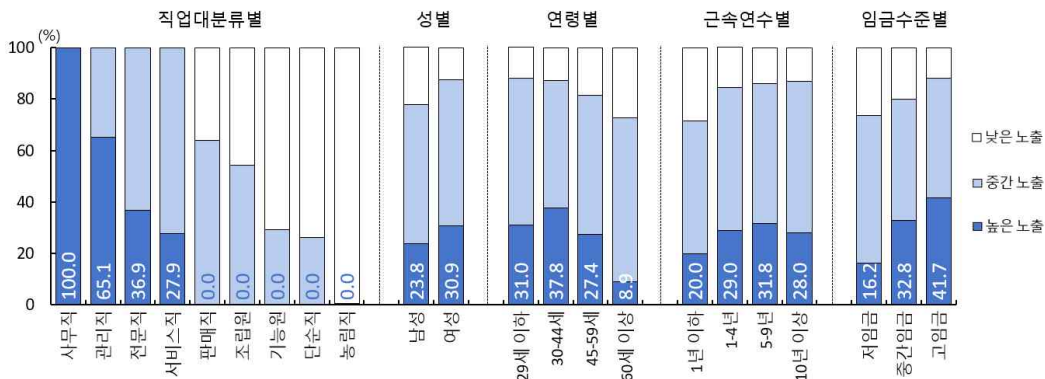
- 인공지능(AI) 기술과 직업 능력 간의 관련성을 토대로 'AI 노출도' 및 'GPT 노출도' 지표를 작성하여,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추정함

AI 노출도와 GPT 노출도 측정방법

AI 노출도 (AIOE)	GPT 노출도 (GPT-sc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elten 외(2019)가 조사한 「AI 기술 특성과 직업의 능력 특성 간의 연계점수」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의 능력 변수에 적용하여 구축함</li> <li>▶ AI 응용기술이 요구하는 능력 점수들을 직업별로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AI 관련 능력에 특화된 직업일수록 그 값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 특성과 직업의 능력 특성 간의 연계 점수를 사람이 아닌 ChatGPT-4가 측정한 점수임</li> <li>▶ ChatGPT-4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읽은 후, 각 과업이 GPT에 의해 잠재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는 점수 응답값을 직업(세분류)별로 평균한 값임</li> </ul>

- 인공지능 영향도가 높은 직업, 즉, 인공지능 관련 능력에 특화된 직업(AI 노출도 상위 25%)에 종사하는 비율은 취업자 특성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남
  - (직업대분류) 사무직은 100%, 즉 모든 직업이 AI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관리직 중 65.1%의 직업이 AI 노출도가 높음
  - (성·연령별) 여성(30.9%)이 남성(23.8%)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별로는 30~44세(37.8%) 및 29세 이하(31.0%)에서 AI 관련 직업 종사자가 많음
  - (취업특성) 고임금 취업자 중 AI 관련 직업은 41.7%로 높은 편이며, 근속 5~9년 차(31.8%)는 상대적으로 높고 근속 1년 이하(20.0%)는 낮은 수준임

취업자 특성별 AI 노출도 구성비, 2023



주: 1)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4자리 수준의 세분류 직업임.  
 2) '높은 노출'은 AI 노출도 상위 25% 직업, '낮은 노출'은 하위 25%의 직업, '중간 노출'은 그 중간에 있는 직업들을 의미함.  
 3)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원자료, 2020.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23 상반기.

- AI 노출도 상위 10개 직업에는 주로 관리자 직업이 포함되어 있고, 하위 10개 직업에는 농림어업직이나 단순직 등이 포함됨
- GPT 노출도 상위 10개 직업은 주로 사무원, 판매업이 많고, 하위 10개 직업에는 식품 및 건설 관련 단순종사직이 많이 포함됨

AI 노출도 상·하위 10개 직업, 2020				GPT 노출도 상·하위 10개 직업, 2020			
상위 10개 직업		하위 10개 직업		상위 10개 직업		하위 10개 직업	
직업명	점수	직업명	점수	직업명	점수	직업명	점수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0.671	가축 사육 종사원	0.508	여행 사무원	0.74	주방 보조원	0.08
정부 행정 관리자	0.666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0.508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0.72	철근공	0.08
경영 지원 관리자	0.655	낙농업 관련 종사원	0.532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0.72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0.09
연구 관리자	0.652	어부 및 해녀	0.533	출납 창구 사무원	0.72	콘크리트공	0.09
교육 관리자	0.650	원예작물 재배원	0.550	기타 금융 사무원	0.72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0.10
기업 고위 임원	0.649	조경원	0.556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0.71	철로 설치 및 보수원	0.10
보험 및 금융 관리자	0.646	양식원	0.578	텔레마케터	0.69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0.10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0.637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0.578	온라인쇼핑 판매원	0.69	기타 식품가공 관련 종사원	0.10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0.628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0.585	작가	0.68	공예원	0.10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0.619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0.585	출판물 전문가	0.68	약기 제조 및 조율사	0.10

주: 1)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4자리 수준의 세분류 직업이며,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원자료, 2020., (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www.work.go.kr) 웹크롤링, 2024.8.

- 국제노동기구(ILO, 2023)에서, GPT 점수의 평균점수와 과업별 점수들의 표준편차에 따라 인공지능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제시\*

\* (보완 잠재력) 직업 내 일부 과업들만 GPT 관련성이 높고 다른 과업들의 GPT 관련성이 낮은 경우  
(대체 잠재력) 직업 내 여러 과업들이 모두 비슷하게 GPT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

GPT 점수에 따른 일자리 영향 유형화		
	낮은 평균	높은 평균
높은 표준편차	<p><b>보완 잠재력</b></p> <p>(직업예시: 변호사, 웹개발자, 도시교통 전문가, 영업판매 관리자, 전기전자 공학 시험원, 산업용 로봇 조작원, 약사 및 한약사 등)</p>	<p><b>알 수 없음</b></p> <p>(직업예시: 학습지 교사, 상품중개인, 정보시스템 운영자, 인사노사 관련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무역사무원, 은행사무원, 사회과학연구원, 웹운영자, 조사전문가 등)</p>
낮은 표준편차	<p><b>영향을 받지 않음</b></p> <p>(직업예시: 환경미화원, 건설 단순종사원, 치과 의사, 조리사, 소방관, 유치원 교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육 교사, 감독, 로봇공학 기술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관리자 등)</p>	<p><b>대체 잠재력</b></p> <p>(직업예시: 텔레마케터, 전산자료 입력원, 여행사무원, 단말기판매원, 번역가, 통역가, 컴퓨터 강사, 직업상담사, 비서, 아나운서 및 리포터 등)</p>

주: 1) 과업 단위로 매긴 GPT 점수의 직업별 평균, 표준편차에 따른.  
출처: Gmyrek, P., Berg, J., & Bescond, D. *Generative AI and Jobs: A global analysis of potential effects on job quantity and quality*. ILO Working Paper 96. 2023.

- 한국의 노동시장에 위의 기준을 적용하면, 보완 가능한 일자리가 대체 가능한 일자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고용조사 2023년 상반기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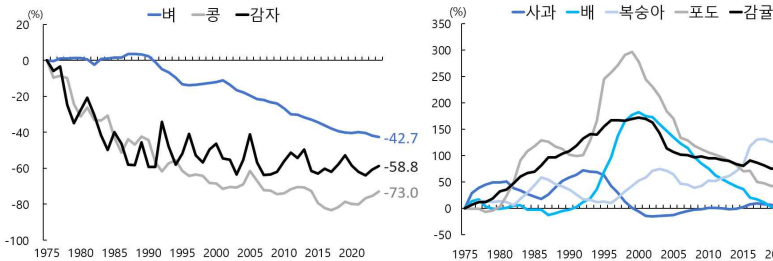
- 보완 가능한 일자리는 454만여 개로, 전체의 16.0%에 해당(남자 8.7%p, 여자 7.3%p)
- 대체 가능한 일자리는 277만여 개로, 전체의 9.8%에 해당(남자 4.1%p, 여자 5.7%p)

### 13. 기후변화와 농작물 생산 변화 [김광수,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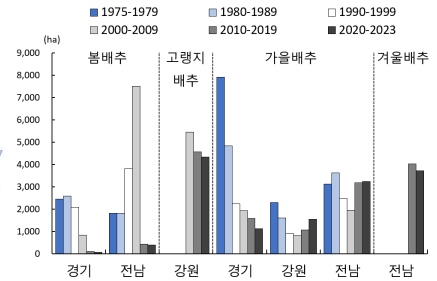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과수와 채소 작물의 주요 생산지 변화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변화양상은 남부와 중부가 다르며, 연간 생산성의 변동폭 확대

- (재배면적) 2024년 벼, 콩, 감자 등 식량 작물은 1975년 대비 42.7~73.0% 감소
  - 2024년 사과, 배는 증가했다가 1975년 수준 유지, 복숭아는 122.7% 증가
  - 2024년 양파는 1975년 대비 343.7% 증가했고, 배추\*는 31.7% 감소
- \* 배추는 재배시기 및 지역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름
  - 전남은 2000년보다 2010년대, 2020년대 초반에 봄배추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가을배추 재배면적 증가
  - 강원은 같은 기간 고랭지배추 및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가을배추 재배면적 증가

1975년 대비 재배면적 증감률, 1975-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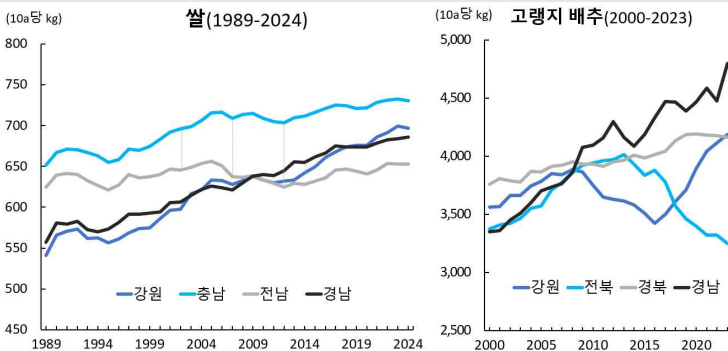
배추 재배면적, 1975-2023



주: 1) 모든 통계치는 노지(논, 밭) 재배면적이며, 고랭지배추는 2002년부터, 겨울배추는 2010년부터 자료가 제공됨.  
 출처: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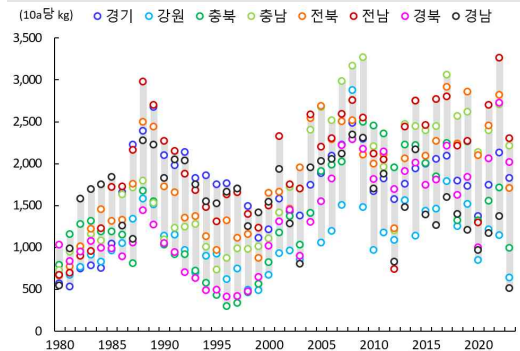
- (단위면적당 생산량) 1989~2024년 지역별 쌀 생산성(10년 이동평균 기준)은 전남에서 4.6%로 정체된 반면, 강원에서 28.9%로 빠르게 증가
  - 고랭지 배추 생산성(2020~2023년)은 강원(17.5%)에 비해 경남(43.1%)에서 크게 증가
  - 사과, 배 등 과수 작물은 기후변화 등에 따라 연간 생산성의 변동폭이 확대

단위면적당 생산량 10년 이동평균, 1989-2024



주: 1) 통계치는 9년 전부터 해당연도까지 총 10개년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평균값임.  
 2) 쌀은 논벼 조곡(껍질을 벗기지 않은 수확한 그대로의 알곡) 기준임.  
 3) 고랭지 배추는 재배면적이 0ha인 경우는 제외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2024.

지역별 단위면적당 배 생산량, 1980-2023



주: 1) 미과수(상품가치가 있는 열매를 딸 만큼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한 과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2024.

부록. 「한국의 사회동향 2024」 영역별 논문제목 및 집필진

영역	제목	집필자	소속
인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지역인구의 변화: 저출생과 인구이동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가구·가족	가구와 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돌봄 상황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건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 다약제 및 노인주의약물 사용 실태	지성환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정보의학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비만 관련 질병의 사망위험	이석민	통계청 통계개발원
교육·훈련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송수연	차의과학대학교 교양대학
	인공지능시대, 인공지능기술과 교육의 만남	신효정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노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 노동시장	함선유 권현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전병유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소득·소비·자산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소득분위별 생애주기 소득분포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여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신중년의 여가와 행복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거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고진수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노인가구의 주거특성과 주거문제		
생활환경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와 농작물 생산 변화	김광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범죄·안전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류 오·남용 실태		
	독거노인의 안전 실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 양극화와 사회통합: 성별과 세대 간 차이		
	청년세대의 젠더격차	박선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